

사라지는 것의 무거움

-여전히 유효한 전원일기의 가치-

홍성일

제 1막 1962년 9월 산업화의 시작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타임머신’ 이란 프로그램처럼 이 글을 시작해 보자. ‘타임머신’ 에 등장하는 것처럼 ‘시대가 만들어낸 희대의 사건’ 들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기사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준다. 아래 기사는 1962년 9월 동아일보 사회면에서 찾아낸 기사이다.

「소가족제」는 시기상조

3일 상오 서울 제1변호사회는 현행 대가족 제도를 소가족 제도로 바꾸려는 최고회의 법사위원회의 민법 및 호적법 개정안에 대하여 현 실정으로 보아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최고 회의는 앞서 이 문제에 대하여 동 변호사회에 의견을 구해왔는데 제1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결론을 얻어 반대의결을 제출한 것이다.

1962년은 역사적으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해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되돌아 볼 때 1962년은 근대화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 불릴 만 하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한국은 산업화의 기반을 닦게 되었고 이후 10여 년은, 급격한 이촌향도 현상과 도시화, 새마을 운동,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중인 과정이기도 하다. 위의 기사는 이러한 변화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는 어떻게 기존의 질서와 대립되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대가족 제도는 산업 사회 속에서 점차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소가족 제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대도시를 만들며 대규모의 노동자 이주를 요구한다. 과거와 같이 고향 땅에 기반해 대가족의 노동력으로 생활을 이루어 내는 것은 경쟁에서의 도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2년 9월, 변호사 협회 사람들은 소가족제도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변호사 협회 사람들이 예상했던 시기는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오게 된다.

제 2막 1982년 서울의 달

1982년 봄, 우리 가족도 서울로 이주하게 되었다. 봉천동의 오밀조밀한 가파른 언덕 길을 올라와 다시 비좁은 골목길을 몇 차례 꺾어야 찾을 수 있었던 집으로 기억한다. 동네 한 가운데는 우물도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다른 친척들은 다 고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서울의 이방인이었다. 어린 나에게 할머니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것과 친한 친척 형제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다른 친척들처럼 한 동네에 같이 살지 않고 우리 가족만 따로 서울에 떨어져 있어야 했는지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다만 잠시나마 할머니와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명절이나 방학을 손꼽아 기다릴 뿐이었다.

전원일기는 이런 서울 생활과 함께 기억된다. 1980년부터 전원일기가 방송되었다고 하니 서울 생활 이전에도 ‘전원일기’를 보았고 그에 대한 소소한 기억이라도 남아 있을 법 하지만 전원일기는 전원이 아닌 서울과 함께 기억된다.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예의 푸근한 오프닝 음악과 안개 낀 시골의 산천이 함께 어우러져 전원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TV 앞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함께 있다. 바쁜 서울의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는 전원일기가 시작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TV 앞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다. 방 한 칸의 봉천동 작은 집에서 우리 가족은 그렇게 전원일기를 보았던 것이다.

프로그램과 함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다. 서울로 이주한 후, 이사는 다시 몇 차례 반복되었고 결국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서울 사람이었다. 이제는 할머니의 품보다는 바깥의 골목길이 더 좋게 되었고 친척 형제들보다는 학교 친구들이 더 좋았다. 그보다 더 머리가 굵어 졌을 때는 명절의 번잡함과 귀향의 지루함이 싫어 공부를 핑계로 홀로 서울에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예의 전원일기의 낯익은 오프닝과 그에 때맞추어 귀가하는 아버지를 볼 때면 나는 TV 앞보다는 내 방으로 들어왔던 것 같다. 간혹 전원일기가 방송되는 시간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면 TV 선택권은 나에게 있었고 채널은 다른 방송을 향해 돌려져 있었다. 전원일기는 산뜻한 신세대 감각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쳐진 구세대의 복고적 향수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만 느껴졌을 뿐이다.

내가 대학에 입학한 96년, 전원일기는 방송 시간을 일요일 오전으로 바꾸었다. 시간대 변경과 함께 배우들의 세대 교체도 이루어 졌다. 세월을 훌쩍 넘어 젊은 신세대들이 전원일기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다. 늦은 일요일 아침. 아침과 점심을 겸한 식사시간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원일기는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보는 프로그램으로 부활하였다. 나는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환골탈태한 복길이와 그 세대의 젊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원일기를 보았고 나름대로 소박한 재미들을 찾고 있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욱 전원일기에 열중이었다. 비록 호상이었지만 객지 생활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던 아버지이시기에 전원일기에 등장하는 할머니가 남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다. 김 회장이 할머니 방에 찾아와 넋지시 건네는 안부의 인사나 걱정 어린 표정 속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느끼셨던 것일까?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의 아버지의 표정은 달랐던 것 같다. 밥상 너머로 보았던 TV를 시청하는 아버지의 표정과 가끔씩 혼자말로 저렇게 효도를 해야한다는 말씀 속에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비록 TV 시청이지만 이를 통해 아버지는 그것들을 상상적 차원에서나마 해소하고 있으셨던 것이었다.

2002년 10월, 전원일기의 종영을 바라보는 나는 약간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있다. 꾸준히 전원일기를 시청한 것도 아니었고 철들 무렵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었다. 전원일기의 낮은 시청률엔 나의 기여도 적지 않다. 이제는 서울 생활 20년에 완전한 서울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되짚어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전원일기를 가족과 함께 시청하고 있는 시간만은 난 서울의 이방인이었던 것 같다. 전원일기를 시청하는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십 수년을 살았던 서울 강북의 한 동네였지만 정서적으로는 20여 년 전의 고향집이었다. 할머니와 친척들이 함께 있었던 고향이라는 공간을 전원일기를 시청하며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이방인의 정체성이었다. 나는 서울 사람이 아닌, 눈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서울 생활의 각박함이 아닌 여전히 이웃과 친척과 형제들이 함께 있는 고향 속에 있었다는, 그리고 그 고향이 지금도 있다는 정체성을 가졌던 것이었다. 비록 그것은 TV 수상기 앞을 떠나 현실로 돌아오면 여지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제 3막 2002년 가을, 강북 재개발 계획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 보자. 지금 나에게는 20년 가까이 살아온 서울 강북 용산구의 한 동네가 고향으로 느껴진다. 눈감아도 훤히 찾을 수 있는 골목골목과 일제시대 때부터 있어왔다는 낮은 지붕의 단층집들, 동네 어귀에 있는 재래시장의 가판과 노점은 살가운 것들이다. 나에게 고향이라는 감정을 안겨주는 전원의 산천이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 축구나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 놀았던 기억과 언제나 변함없는 건물들, 동네 친구들의 부모님들과 이웃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동네는 재개발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낮은 단층집들은 헐리고 골목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 자리엔 큰 도로와 빌라들이 들어서고 있다. 큼직큼직한 도로와 빌라는 개성을 상실한 채 육각형의 성냥갑 모양으로 동네를 차지하는 중이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자초지정은 이러하다. 예전에 한 가족이 살았던 집에서 자식들이 장성해 분가를 이루게 되었다. 자식들은 강남이나 신도시 등 보다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좋은 동네로 이사했다. 자식을 길러낸 노부부는 덩그러니 남은 오래된 집 속에서 주말에나 찾아오는 손자, 손녀와 아들, 딸들을 기다렸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들은 유명을 달리 했다.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들은 옛 집을 지켜내기 보다는 재개발업자에게 파는 것을 선택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 집들이 헐리며 그 가운데 도로와 빌라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흐름은 강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강북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강남에 비해 절대적으로 낙후한 강북을 강남과 같은 쾌적한 도시로 바꾸어 강북과 강남의 계층간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요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 3곳을 중심으로 향후 4년간 강남과 같은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겸비한 업그레이드된 강북을 만들겠다고 한다. 만약 서울시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이제 강북은 예전과 같은 낮은 단층집들과 촘촘히 엮여진 골목골목을 찾기 힘들 것이다. 대신 인공의 몰개성적인 빌라와 아파트, 블록으로 구획화된 주거 단지가 들어설 것이다. 내가 서울을 고향으로 여길 수 있었던 좁은 골목에서의 축구와 술래잡기는 옛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 역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제 4막 강북의 강남화와 전원일기의 퇴출

뜬금없이 강북의 재개발로 방향을 선회해 이야기를 풀은 이유는 전원일기의 퇴출도 이와 유사한 논리가 관철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0년의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전원일기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향을 상실한 기성 세대의 향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늙어가게 되면서 전원일기는 시청률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수평적으로는 시골의 인정보다 도시의 세련됨을 보다 선호하게 된 신세대가 있다. 부모의 고향을 벗어난 이들은 도시인이었고 강북의 자연스러움과 분주함보다는 강남의 인공미와 쾌적함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들이 지향하는 삶은 여피족의 도시민의 삶이었다. TV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청담동의 카페와 프리랜서의 풍족한 삶 속에서 전원일기가 들어설 공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업그레이드되어 화려한 조명과 흥청거림, 혹은 쿨한 생활 습관과 나이스한 주거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귀에 익은 전원일기의 오프닝 곡과 안개 낀 시골의 정적인 산천은 구닥다리로 여겨지는 것이다.

TV는 결코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다. TV의 프로그램 변화는 현실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전원일기의 퇴출도 지난 근대화의 과정이 일단락 지어지며 새로운 도시민의 생활로 채편되는 오늘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은 2002년 발표된 강북의 재개발 계획과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다. 전원일기의 종영이 나에게 지난 20년의 서울생활과 향후의 서울생활의 구분점으로 다가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제 나는 전원일기를 보며 내가 서울의 이방인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전원일기가 사라진 TV 속에서 내가 감정이입하는 대상은 도시민의 쿨한 생활과 나이스한 인테리어가 될 것이다. 이제는 강남 문화로 대표되는 도시민의 일상이 삶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난 이제 고향과 괴리된 진정한 도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논리로 사라지는 것들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강북의 재개발 와중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들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 동네의 오래된 단층집에 살았던 노부부는 죽어서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전원일기 역시 지난 2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지려 한다. 사라지는 것들은 사라질 만큼 가볍기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애써 사라지지 않은 것들을 사라졌다고 여기기 때문인가? 분명한 것은 전원일기가 종영되어도 우리 아버

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여피족의 삶은 지향점이긴 하지만 여피족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제 5막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전원일기

완전한 서울 도시민이라 생각하는 나이지만 최근 동네에 들어서는 큰 도로와 빌라를 보며 느꼈던 감정은 당혹감이다. 이는 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고향을 떠나 직접 몸으로 부딪혔던 정서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도시민이 감정이입하는 쿨한 생활 습관과 나이스한 인테리어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들이다. 우리가 추구한 안락한 삶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웃과 함께 하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나만의 안락한 삶이었다. 그러나 막상 이웃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화하고 우리를 철저히 개인으로 구획하게 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한다. 정작 도시민의 개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정서적인 동질감이다. 생각해 보면 전원일기가 우리에게 주었던 감정은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유입된 도시민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고향에서 뻗어 나온 '같은 이웃' 들이라는 감정이었다. 이는 각박한 도시민의 일상 속에서 동질감을 부여했었다. 마치 그물눈이 그물망에 얽여 있었을 때는 각각의 그물눈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막상 한 그물눈이 끊어졌을 때에 그 그물눈을 시초로 모든 그물이 끊어지게 되듯, 전원일기가 기능했던 역할은 전원일기가 사라지게 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 비슷한 동질적 이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전원일기의 퇴출과 이번 자리를 메우는 세련된 도회지의 삶은 단순히 삶의 풍요로움을 떠나 정서적인 단절이 된다.

갑작스런 전원일기 퇴출과 이에 반발하는 시청자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MBC 측은 새로운 농어촌 드라마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쉬워도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전원일기는 지난 2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 연로한 할머니를 모시는 그 보단 덜 연로한 가부장.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시 손자를 낳고 그 손자들은 서로 연애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성은 20년의 세월 속에서 서로 다른 시청자들이 감정이입하는 대상으로 기능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원일기를 보며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한 이웃이라는

공통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새롭게 태어난 농어촌 드라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지는 의심스럽다. 그것은 작품의 완성도와 탄탄한 연기를 떠나 오래된 된장에서나 맛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역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 가치에 대한 홀대가 전원일기의 퇴출 속에 함께 하고 있다. 재편된 도시민의 일상은 개인주의와 과편화로 철저하게 고립되고 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서울의 강남화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제 서울에서 낮은 단층집과 거미줄 같은 골목길은 자취를 감춰간다. 간혹 이러한 것들이 향수를 자극하는 일화적인 이야기로 재등장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더 이상 찾기 힘들 것 같다. 전원일기의 퇴출은 이에 대한 상징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추억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재’로서 존재하며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동질적인 이웃을 그리워하고 있다. 사라지는 것들은 그것이 가볍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전원일기를 사라지게 만든 것은 도시민의 삶 속에서 더욱 찾기 힘든 정서적인 유대감을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바꾸려는 시도일는지도 모른다. 아직 전원일기의 가치는 유효하다. 20여 년의 시간은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여기까지’ 도달한 시간들이다.